

<제 9 장>

1. 고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일 (9:1-5)

고난의 질문과 하나님의 일 (9:1-5)

제자들은 소경의 상태를 죄의 결과로 해석하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단순한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나타내다”(φανερῶν)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 밝히 보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난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이어 “나는 세상의 빛이라”(τὸ φῶς τοῦ κόσμου)고 다시 선포하신다.

빛은 단순히 위로하거나 비추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고 살리는 존재이다.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일으키는 적극적 능동의 계시이다.

2. 치유와 순종 (9:6-12)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다.

이 행위는 단순한 치료 방식이 아니라, 창조와 회복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소경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갔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보게 되었다. 믿음은 완전한 이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3. 논쟁의 시작 (9:13-34)

치유가 안식일에 이루어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건 자체보다 규정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치유받은 자는 압박과 위협으로, 처음에는 “그 사람”(ἄνθρωπος)이라 하였고, 이어 “선지자”(προφήτης)라고 고백한다.

참된 인식은 외적 환경이 아니라, 경험된 진리를 통해 깊어져 간다.

4. 출교와 만남 (9:35-38)

결국 치유 받은 자는 회당에서 “출교”(ἄποσυνάγωγος) 당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의 배제와 사회적·영적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단절의 자리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πιστεύω)라고 고백한다.

믿음은 인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으로 나아갈 때 완성된다.

5. 심판의 선언 (9:39-41)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자’는 육체의 시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안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 자를 가리킨다.

반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빛 앞에 자신을 열어 두는 자이다.

문제의 본질은 무지 자체가 아니라,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에 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순간 생명이 아닌 심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장은 단순한 시력 회복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문제를 드러내는 계시이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기는 자는 오히려 어둠에 머물고,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참된 시야에 이르게 된다.

<요한복음 9장>

빛 앞에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드러나는 장이다.

고난은 단순한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빛이 임할 때 회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시작된다.

보게 된 자는 점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본다고 여긴 자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머문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오는 자는 보게 되지만, 자신을 기준으로 서는 자는 빛 앞에서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참된 시력은 눈이 아니라,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 곧 겸손히 반응하는 영적 태도에 달려 있다.